

1930년대 문일평의 ‘문화민족주의’사학의 시대사상* :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안 중 철**

- | | |
|---------------------------|------------------------|
| 머리말 | 1) 한국사에서의 대외관계사 |
| 1. 문일평의 생애 | 2) 『한미관계오십년사』와 한국근대 |
| 2. 문일평의 ‘문화민족주의’사학의
특징 | 의 대외관계
맺음말-해방 후의 유산 |
| 3. 문일평의 한국 대외관계사의 특징 | |

〈국문요약〉

이 글은 근대 민족주의 내지 ‘문화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호암 문일평의 업적과 대외관계사를 다루었다. 이 글이 새롭게 주

* 이 논문은 2010년 6월 17일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한국학’의 형성과 동아시아”라는 학술회의와 동년 10월 12-15일 중국 산둥대학에서 개최된 제 11회 중국한국학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필자의 원고들을 수정, 보완, 확대한 것이다. 토론을 해주신 정호훈(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성호(중국 연변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주요논저 : 2010,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2010, 『해방 전후 아더 번스(Arthur C. Bunce)의 활동과 미국의 대한정책』 『미국사연구』 31 ; 2009,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미국무부의 대응, 1931-1937』 『한국사연구』 145 ; 2009, 『식민지후기 박문사(博文寺)의 건립, 활용과 해방 후 처리』 『동국사학』 46

목한 지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호암 문일평은 개화기 기독교가 강했던 서북의 국경관문 의주출생으로 생애 초기에 미국 유학을 시도 했지만 여의치않자 그 대안으로 일본에 유학한 인물이다. 이것은 그가 초기에 한국민족주의와 더불어 근대서구문명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그는 20대 초반에 일본과 중국에서 20세기 초 한국에서 활동한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홍명희 등 민족주의 자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서구문명과는 달리 한국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이 되었다. 셋째, 호암은 다른 일본의 식민사학자나 이들과 대결한 한국인 민족주의 역사학자와는 달리 한국민족의 기원이라든가 고대 한일관계내지는 조선후기 '실학'문제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그는 고려 중엽 이후부터 조선시대를, 정치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지만 '문화'의 관점에서 역사의 진보가 있었다고 보았다. 넷째 그는 대외관계사에서 한국과 다른 지역과의 교류, 예를 들면 유학생, 문물교류 등에 주목했다. 다섯째로 그의 연구는 식민지시기에 매우 드물게도 개항기 이래의 한국의 대외관계, 특히 한미 관계를 다루었다. 그리고 선교사, 한인교민, 그리고 유학생 등이 한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이러한 대외교섭이 '문화'의 형태로 한국사회를 변화, 발전시킬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일평의 '문화민족주의'사학은 한국사를 외부와 끊임없이 교류해온 발전의 역사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문화민족주의, 문일평, 기독교, 대외관계사, 한미관계오십년사, 조선일보

머리말

한국근대역사학이 방법론상으로 문헌고증학에 기초하고 제도적으로는 언론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리매김한 시기가 1930-40년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기의 근대역사학이 20세기 초 광무개혁기의 역사학과 신채호, 박은식 등이 제기한 문제들을 발전시켰음도 잘 알려져 있다.¹⁾ 20세기 초 일제의 침략과 더불어 한국 민족주의 사학은 '혼(魂)'이라든가 '국백(國魄)'등을 강조했다. 이는 일제 침략이 한반도에서 구체화되자 정신적 영역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었다. 3·1운동 이후 전세계적으로는 제국주의 열강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문명'보다는 '문화'를 통한 사회의 '개조', 즉 '문화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문화주의'는 1차 대전 전후로 독일과 일본에서 대두한 것으로 주로 인간의 의식과 도덕성의 함양을 위한 '인격개조'를 통해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²⁾

3·1운동 이후 조선 내에서 '정치적 민족주의'의 기회가 박탈되자 지식인들은 '문화주의'사조를 받아들여 인격과 한국문화의 발전과 연구를 통한 체제 내 운동인 '문화적 민족주의'를 배태했다. 이는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에도 일정하게 지속되었다.³⁾ 192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성립된 한국의 근대역사학은 20세기 초 민족주의의 세례

- 1) 김용섭, 1976,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발달-1930-40년대의 민족사학」(이우성·강만길 편, 『한국의 역사인식』 下, 서울: 창작과 비평사, 473~474쪽)
- 2)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76~185쪽 ; 이지원, 2007,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해안, 170~176쪽
- 3) 1920년대의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는 1900년대 초 애국계몽운동기에 기원이 있는데 식산(殖産), 교육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1900년대 초와 달리 일제에 대해서 점진주의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정의는 Michael E. Robinson, 2007,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A Short History*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61~65.

를 받은 인물들의 성장과 일본, 미국 등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귀국과 함께 언론, 교육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자리잡았다. 사상의 전 지구적 연동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역사학에 대한 서술은 일국사, 특히 민족주의사학의 내용과 그것이 민족주의를 얼마나 고취해온 가에 대한 서술에 치중해왔다.⁴⁾ 그리고 그것은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 등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식민사학”과 명확히 대결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왔다.⁵⁾

역사적 경험상, 그러한 이항대립적인 구도 속에서 이시기 역사학자들의 업적을 평가해온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 사상이 가진 보다 큰 맥락을 사상(捨象)시켜버릴 위험이 있다. 그들이 다른 지역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사조를 한국적 맥락에 따라 새롭게 전용(轉用)할 수 있던 가능성도 덮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당시 1930년대 새롭게 대두된 ‘조선학’운동이 일제의 식민담론에 대항하면서도 어떤 지점에서 허용될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시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재원들을 어떻게 각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었는지 조망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⁶⁾

해방 이후 민족주의 사학자들 중 정인보가 연희전문학교 문과에서, 안재홍이 언론과 사회활동영역에서 활동한 것과 달리 호암(湖岩) 문일평(文一平, 1888~1939)은 중등학교와 언론계에 종사하면서도 사회활동에 몸담았다. 1927년부터 1933년까지는 각종 고등보통학교(현 중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좌우연합운동인 신간회 활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이후 1933년부터 1939년 사망할 때 까지 줄곧 조선일

-
- 4)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에 출판된 위 책이라든가 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1994,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 비평사에 수록된 사학사는 문을 일별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5) 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 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는 이만열, 1976, 『일본 관학자들의 식민사관』(이우성·강만길 편, 앞 책) ; 송찬섭, 1994, 『일제의 식민사학』(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참조.
 - 6) 이는 프레신깃트 두아라가 만주국을 연구하면서 가졌던 방법론이자 문제의식이다. 프레신깃트 두아라, 한석정 옮김, 2006, 『주권과 순수성-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9쪽

보에서 주필로 활동하면서 역사연재물을 생산했다. 당시 대중적인 소비라는 관점에서 그의 글은 매우 영향력이 컸는데 특히 한국대외관계사에 대한 출간물들이 그러했다. 이러한 이유로 문일평은 한국민족주의사학에서 일찍부터 주목해온 인물 중 하나이다.⁷⁾ 그는 단재사학을 심화·발전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의 '朝鮮心'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⁸⁾ 그리고 그의 민족주의 사학, 대외관계사,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이 주된 연구과제가 되어 왔다.⁹⁾

이 글에서 필자가 문제로 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지점이다. 첫째, '문화주의'라는 세계적 사조가 어떻게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발현했는지를 문일평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문화주의'는 1차 대전 종전 전후로 서구문명 중심의 일직선적 발전을 비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기실 '문화주의'를 역사학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인물은 자산(自山) 안확(安廓)으로 평가를 받는데 특히 1923년에 발간한『朝鮮文明史』가 가장 대표적이다.¹⁰⁾ 이에 반해 문일평은 정인보, 안재홍 등과 1930년

7) 문일평에 대한 연구와 소개는 한국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의 관심사였다. 이기백, 1975, 「문일평과 그의 사학」, 『湖岩史論選』, 탐구당 : 김광남, 1983, 「문일평의 인물론에 대하여」, 『사학연구』 36 : 김광남, 1984, 「호암 문일평의 외교인식」, 『사학연구』 38 : 문철영, 1987, 「호암 문일평의 역사인식」, 『한국학보』 46 : 윤해동, 1994, 「문일평」, (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앞 책) : 최기영, 1994, 「문일평」, 『한국사시민강좌』 15 등을 들 수 있다.

8) 김용섭, 1976, 앞 논문, 483~485쪽 : 이기백, 1973, 「해설-한국 근대사학의 발전」(이기백 편저, 『근대한국사논선』, 탐구당, 250쪽)

9) 그의 전집은 이미 그가 사망한 1939년에 3권으로 朝鮮日報社出版部에서 간행되었고, 『湖岩史話集』(1939, 京城: 人文社)와 『少年歷史讀本』(1940, 京城: 朝鮮日報社出版部) 등도 출간되었다. 뒤의 두 권의 책과 더불어 호암의 육필원고상대인 『高麗概史』가 묶여서 제4권으로 1994년에 민속원에서 출간되었다. 아울러 앞의 권수도 다시 출간되었다. 1995년에 그의 언론출간물이 최기영의 주도로 한 권으로 만들어져 제5권으로 출간되었다. 전집에 수록된 글의 자세한 목록은 최기영, 1995, 「『湖岩 文—平全集』해제」, 『호암 문일평 전집 5-新聞補遺 篇』, 민속원을 참조. 이하 이 글에서 『全集』과 권수로 표기한다. 이 글에서는 언론지에 소개된 호암의 글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전집의 쪽수를 병기했다. 원래 글의 제목과 전집에 수록된 글의 제목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가급적이면 원 제목을 표기했다.

10) 이에 대한 것은 장석홍, 1994, 「안확」, (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앞 책) :

대 '조선학'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민족적 정신"을 언론활동을 통해 고무하고자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¹¹⁾

둘째, 이 글은 그의 사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왜 그의 업적들이 당시 조선학운동을 전개한 다른 학자들의 관심사인 고대사(한국민족기원)나 조선말(실학운동)보다 주로 근세사(주로 고려 중기 이후와 조선)와 대외관계사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¹²⁾

셋째, 그가 안학이나 다른 민족주의 역사학자들과 달리 개항기에 집중한 이유와 한국사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피려고 한다. 이 글은 그가 고려와 조선의 발전적 측면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다루면서 그것이 기존의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 1910년대의 근대민족주의 사학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 이는 이미 1920년대 안학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자치제와 봉당정치를 긍정적으로 본 흐름에서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북지역 출신으로 기독교의 영향과 한국인 민족주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와 조선시대의 발전의 측면을 정치와 문화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전자는 부정적, 후자는 긍정적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문일평의 문화민족주의 사학의 특징으로 고대사가 아닌 근세사와 개항기에 집중한 이유, 한국사를 움직인 힘의 실체에 대한 이해 방식을 다루되 지면 관계상 그것을 한국의 대외관계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한영우, 1994, 「1920년대 안학의 민족주의문화사서술-『조선문명사』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등을 참고.

- 11) 문일평에 대한 해방 후 최초의 소개는 그의 제자였던 홍이섭에 의해서인듯 하다(홍이섭, 1962, 「湖岩 文一平 韓國史認識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 『사상계』 9월호).
- 12) 물론 안학도 신채호와 달리 고려·조선을 보다 발전적인 체계아래에서 이해하고 고대사보다는 후대에 더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본문에서 논하겠지만 안학과 달리 조선왕조의 긍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일평은 부정적인 면도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학과 달리 문일평은 개화기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차이점일 것이다.

1. 문일평의 생애

호암 문일평은 평안북도 의주에서 문익점의 후예로 남평(南平) 문씨 가문에서 1888년에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한학 등을 공부하면서 지내다가 1905년, 러일전쟁이 진행 중일 당시 일본 아오야마 가쿠인[靑山學院]에 유학했다.¹³⁾ 당시 평안도 지역은 러일전쟁의 주된 전장이었고 많은 서북인들이 일본의 군사력, 그리고 일본인들이 서구인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고 영미문명을 동경했다. 그리하여 그는 미국선교사의 소개로 감리교회 소속의 아오야마에 들어갔다.¹⁴⁾ 그가 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일본 동경에 왔다는 것은 그가 애초에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해외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아오야마의 수업에 들어갔다가 부족한 일본어실력 때문에 학교 밖에서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이어서 세이소쿠[正則]학교에 입학했다. 여기서 그는 한국근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홍명희와 이광수를 만났다.¹⁵⁾ 이어서 그는 이광수와 함께 1907년에 메이지 가쿠인[明治學院] 중학부에 편입했고 동경에서 서북지방 출신들이 주도한 태극학회(太極學會)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1908년 9월에 귀국 후 안창호가 설립한 평양 대성(大成)학교, 의주의 양실(養實)학교, 서울의 경신(敬新)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서울에 있을 때 경신교장이었던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 한국명 元杜尤)와 학감 김규식박사와 교류가 있었다. 그리고 최남선의 광문회(光文會)와 상동교회 내의 상동청년회에 출입하기도 했다.¹⁶⁾ 전자는 한국의 고전을 간행하는 기관이었고 후자

13) 문일평의 생애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는 홍이섭, 1962, 앞 논문, 4~7쪽 참조.

14) 1935.3.14~16, 「不忍池畔의 옛꿈」 『조선일보』; 1994, 『全集』 3권, 민속원 재간, 489쪽

15) 『全集』 3권, 489~490쪽

16) 『全集』 3권, 492쪽. 상동청년회는 1911~12년에 있었던 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 즉 신민회사건('105인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많았다.

는 한국민족운동, 특히 국권회복운동의 핵심적인 단체였다. 당시 그는 서울의 주류 지식인과 교류를 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측의 인사들과 깊은 교분이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유학과 귀국 후 교사생활을 하던 도중 선교사, 기독교인들과 교류를 통해 그는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를 강력히 원했다.

그러나 當時 내 생각은 學校教育 보다도 米洲行에 있으니만치 渡米運動에 무척애를 썼으며 旅行券을 얻기가 困難하므로 아야 渡米를 斷念하고 말았다 渡米를 斷念한 나는 또다시 東京에 건너가게 되니 때는 日韓併合의 翌年인 一九一一年 봄이다.¹⁷⁾

후일 그가 미주(米洲)라고 회고한 나라는 당시 그에게는 아름다운 나라, 즉 미국(美國)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유학만 아니라 첫 번째 유학을 시도할 때도 그는 미국유학을 먼저 시도했고 그것이 좌절되자 대안으로써 일본을 선택했던 것이다.¹⁸⁾

이것은 그의 사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그의 연구주제선택과 함께, 한국이 배워야 할 근대문명의 준거점을 미국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점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상대화할 수 있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족'문제에 있어서 고대 기원문제보다는 문일평이 살았던 당대와 가까운 시기의 역사적 형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을 것이다. 이는 이 글에서 다룰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즉 첫째, 다른 일본의 식민사학자나 이들과 대결한 한국인 민족주의 학자들과는 달리 그는 고대사의 한일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고려와 조선시대를 역사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다루었다. 둘째, 그는 한국과 해외의 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한국인들의 해외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11년 봄 와세다대학 예과에 입학한 이듬해 가을, 호암은 동 학부의 정치경제과에 진학하여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김성수, 안재홍,

17) 『全集』 3권, 492쪽

18) 1938.3, 「나의 東京留學時代」 『朝光』 : 『全集』 5권, 296~297쪽

송진우 등과 교유관계를 가졌다. 그는 일본에 있으면서 유학생들이 운영하는 잡지의 발간에 관심을 가졌다.¹⁹⁾ 일본 내에서 천황암살미수사건 등으로 조선유학생들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자 그는 1912년 말에 중국으로 건너가 1914년 봄에까지 난징과 상하이에서 조소앙, 홍명희, 정인보 등과 함께 기숙하면서 신규식이 설립한 동제사(同濟社)라는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했다. 아울러 중국으로 건너온 김규식, 백암(白巖) 박은식 등과 함께 활동했다. 그리고 그는 대공화보(大共和報)라는 중국신문사에서 사원으로 활동했다.²⁰⁾ 이때부터 그는 기독교보다는 도교나 불교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 같다. 그는 불경을 읽으면서 단재나 중국승려들에게 불교를 가르쳐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원효의『大乘起新論疏』가 중국불교계에 많이 알려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²¹⁾ 중국에서 그는 중국 혁명당 지도자와 청년외교관(陳英士, 顧維鈞)들과 교유관계를 맺었다.²²⁾ 그는 일본과 중국에서 이미 유명한 한국인 민족주의자들,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홍명희 등과 교유관계를 가졌고 사상적으로도 다양한 흐름에 노출되었다. 이를 통해 그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3·1운동에 참여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징역 8개월을 복역했고 이후부터 줄곧 중동(中東)학교, 송도고등보통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재직하면서 잠시 일본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다(1925년 세 번째 독일유학). 귀국 후 1930년대 초까지 줄곧 신문사와 중등학교들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기간에 그는 조선일보를 통해 신간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조선물산장려회의 이사가 되기도 했다. 문일평은 1933년 4월에 조선일보사의 편집고문으로 취임, 1939년 4월에 사망할 때까지 비교적 안정된 생활 속에서 역사물 생산에 가장 왕성한 시기를 보냈다.²³⁾ 그가 조선일보에 편집고문으로

19) 「不忍池畔의 옛꿈」: 『全集』 3권, 493쪽

20) 1935.3.19~21, 「揚子江邊의 봄빛」 『조선일보』: 『全集』 3권, 497쪽

21) 『全集』 3권, 499쪽: 최기영, 1995, 앞 글, 5쪽

22) 「揚子江邊의 봄빛」: 『全集』 3권, 501쪽

23) 그러나 문일평은 재정적으로 허덕였는데 아마도 많은 책 구입, 자녀 부양, 그리고 빈번한 회식 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문일평 저, 이한수 옮김.

근무하게 된 배경으로 같은 서북지역 출신인 방응모가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그를 초빙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는 1934년 5월에 발기된 역사연구 단체인 진단학회에도 두계(斗溪) 이병도(李丙燾) 등과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는 당시 문일평이 일본과 중국에서 만난 민족주의 인사들과의 교류라든가 1920~30년대 폭넓은 사회활동과 역사저술 때문에 신망이 높은 인사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문일평의 '문화민족주의'사학의 특징

일제 식민사학의 한국사에 대한 중요한 지배담론 중 하나는 바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다. 일제의 관학자들은 이를 지원하는 학문적 업적을 생산해냈는데 그 핵심은 고대사에서 일본과 조선인은 종족상(ethnic) 같았는데 근대에 일본은 근대화를 이룩했지만 조선은 유교, 혹은 중국문명의 폐해로 근대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이 근대화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²⁴⁾ 물론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와 같은 일본의 대표적인 학자는 『일본서기』나 『고사기』 등에 나타난 초기기록들이 언급하고 있는, 일본황실의 한반도 도래설을 신화의 영역으로 일축하면서 '일선동조론'을 부정했다.²⁵⁾ 당시 일본사학계, 특히 제국대학과 사립대학의 사학과 교수들은 대체로 '일선동조론'을 받아

2008, 『문일평 1934년-식민지시대 한 지식인의 일기』, 살림 곳곳에 그러한 암시를 얻을 수 있다.

24) '일선동조론'은 필자가 보기에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이데올로기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만약 '동화정책'을 근거로 한국식민지를 인식한다면 이는 1930년대 후반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동화정책'에 대해서는 권태덕, 2001, 『동화정책론』, 『역사학보』 172, 역사학회 : 2007, 『1920, 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한국사론』 53, 서울대 국사학과 참조.

25) 스테판 다나카 저, 박영재·함동주 옮김,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38~251쪽 참조. 시라토리와 같은 인물들도 일제의 조선통치를 서구와 같은 식민담론에 기초해서 긍정하고 있었다.

들이지 않았다. 특히 와세다대학에서 가르친 쓰다 소키치(眞田左右吉)는 신화와 역사의 시대를 구분해온 대표적인 인사였다.²⁶⁾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파시즘체제에 굴복한 동경제대 등의 역사학자들은 일본 고대 천황의 존재를 역사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든가 국민교육차원에서 일본 고대 천황의 존재를 긍정하게 되었다.²⁷⁾

이에 반해 대부분의 한국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식민담론과 연관된 고대신화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민족적 특수성의 발현, 그리고 단군신화에 대한 해석에 관련된 논쟁에 뛰어들었다. 1900년대 초부터 단재 등을 필두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단군과 고구려 광개토왕의 만주경영등의 문제를 활발히 다루었는데 이는 “한국적인 것(Koreanness)”과 “국민성”이 “시간의 모래더미로부터 발굴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진 행위였다.²⁸⁾ 문일평도 일본에 첫 번째로 유학하고 있을 당시 유학생 회지에 발표한 글에서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아래의 인용문은 1908년에 발표한 것이다.

個人에特質이各有함과如히 國體도 亦是其 歷史의 事實과 國民의 性

- 26) 1925년 문일평이 유학했을 때 와세다대학의 쓰다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책은 1940년에 발매금지당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 저, 이규원 옮김, 2008, 『천황과 도쿄대-현대 일본을 형성한 두 개의 중심축』, 청어람미디어, 707~715쪽 참조. 쓰다는 잘 알려져있듯이 1918년부터 1940년까지 일본 와세다대학교 사학과에 있으면서 안재홍, 손진태, 이병도 등 한국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일부 고대사연구자들이 그의 보수성을 지적하면서 한국고대사연구의 문제점의 근거로 삼고 있다. 쓰다의 입장은 양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 27) 전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히라이즈미 키요시(平泉澄)이고 후자는 쿠로이카 카츠미(黒板勝美), 츠지 젠노스케(辻善之助)등이었다. John S. Brownlee, 1997. *Japanese Historians and the National Myths, 1600-1945: The Age of the Gods and Emperor Jinmu* (Vancouver, 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p. 145~179
- 28) Andre Schmid, "Decentering the "Middle Kingdom": The Problem of China in Korean Nationalist Thought, 1895-1910," in *Nation Works: Asian elites and National Identities*, eds. Timothy Brook and Andre Schmid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 91

格으로 因하여 自然히 一種特質이 生하느니 我韓으로 言하면 吾祖檀君이 創建하신 四千載歷史遺訓과 其孫 夫餘族二千萬의 倫理的思想이 化合하여 我國體의 特質을 表彰者 有하니 卽禮義俗이 是라(강조: 필자).²⁹⁾

이는 당시 호암이 단군을 역사로 인식하고 부여족(夫餘族)으로 한국민족의 기원을 삼고 있었던 단재 등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가 1900년대 초 기독교에 관계하면서도 국가주의 내지 국수적 문화 인식에 노출되었음을 보여준다.³⁰⁾

1910년대 이전과 달리 1920년대부터는 보다 엄밀한 역사주의적 방법, 즉 사료를 통해 각 시대의 독특성을 규명하면서도 전체로서의 발전적인 역사상을 그려내는 것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상은 문명개화를 주장한 20세기 초두의 역사학이 내세운 '서양따라잡기'를 위한 민족주의 운동과는 일면 다른 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1920년대 이후에 한국사학계에서도 단군을 신화로 보지 않으면서도 한국민족의 기원문제와 연결시킨다든가, 고려시대 이후를 어떻게 역사의 발전과정에 넣을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³¹⁾ 특히 문일평은 고대사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 민족

29) 문일평, 1908, 「我國青年의 危機(續)」, 『太極學報』 11월호 : 「全集」 5권, 145~146쪽

30) 한말 일제 초기의 한국 지식인들의 국수적 민족문화 인식에 대해서는 이지원, 2007, 앞 책, 54~70쪽 참조. 당시 지식인들은 “檀箕” 혹은 “檀箕舊邦” 등 단군과 기자의 나라를 의미하는 국수적인 의식을 민족주의의 핵심으로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었다.

31) 향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만 당시 '문화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고대사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다. 박은식의 경우도 조선말과 식민지 통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박은식의 조선후기의 유교와 일제통치에 대한 양면적 비판을 통한 새로운 사회의 전망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노관범, 2009, 「『한국통사(韓國痛史)』의 시대사상(時代思想) -자강(自強), 인도(人道), 혁명(革命)의 삼중주-」 『한국사상사학』 33, 325~351쪽 참조. 최남선의 경우도 1931년과 1943년에 각각 발간된 『朝鮮歷史講話』, 『古事通』이라든가 해방 후 1953년에 발간된 『국난 극복의 역사』 등에서 고려이후의 역사의 서술비중이 갈수록 늘어갔지만 식민지시기

주의를 변호하려고 했다. 그의 관심은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는 '역사적' 민족주의였다.

문일평은 192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학의 이러한 고대사논쟁에 거의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조선학운동'에 깊게 개입했다.³²⁾ 조선학운동은 1930년대 초 신간회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민족주의자들이 최소한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것은 정치적인 운동이 불가해지자 "정치적 차선책"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1920년대 조선일보 주필로 신간회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30년대 조선학운동을 이끌었던 안재홍의 다음의 발언은 중요하다.

무릇 일거에 政治的 成敗를 決하려는 문제라면 시대의 압력이나 객관의 정세로써 다룰 조건이 만히 잇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만 政治的 躍進이 불리한 시대이니 차라리 文化的 精進에 노력하자 함이다. 그것은 아모 政治的 형태로서가 아니오 차라리 事業的 企業的 방식으로써 이에 정진하자 함이다.³³⁾

당시 1934년 무렵에 사회주의자들이 일소되고 전향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일제 관학의 성장과 더불어 192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한국사의 체계 내에서, 특히 고대사에서 한국민족의 존재와 조선후기 실학을 통한 조선사회의 발전성을 보여주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민족주의자들의 관심은 위인선양, 고적조사, 다산 정약용의 실학선양운동 등 '조선학'운동으로 나타났다.³⁴⁾ 즉 1930년대 '조선학'운동은 일제의 관학, 즉 총독부 중추원 소속의 조

당시 그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고대사와 문명권에 대한 탐구였다. 최남선에 대해서는 류시현, 2009, 『최남선연구-제국의 근대와 식민지의 문화』, 역사비평사 참고.

32) 문일평도 1920년대 단군국조송배강연회에 이윤재 등과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리 적극적이었던 것 같지 않다. 이지원, 2007, 앞 책, 225쪽

33) 안재홍, 1935, 『朝鮮과 文化運動』, 『新朝鮮』 1월 : 이지원, 2007, 앞 책, 328쪽 재인용.

34) 이지원, 2007, 위 책, 305~349쪽

선사편수연구회와 경성제국대학 사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朝鮮史'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강했고 신간회 운동의 흐름을 잇는 좌우합작의 성격도 있었다. 당시 백남운, 이태준, 이청원과 같은 마르크스주의 학자들도 이러한 학술운동에 동참했다.³⁵⁾ 1934년에 있었던 진단학회의 창립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⁶⁾

문일평의 역사인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이는 1920년대 호암이 당시의 시대 조류에 노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학문, 교육, 저술활동에 돌입했다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없는 식민지 조선에서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한국 역사를 이해할 때 가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문화적 발전이 비록 일지선적인 발전은 아니었지만 그는 고대-고려-조선을 잇는 한국의 특징을 바로 "東方古文化國"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군자국"이라든가 구주인들의 눈에 비친 "신선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新羅朝의 優美한 藝術的 文化라든지 高麗朝의 莊嚴한 佛敎的 文化라든지 漢陽朝의 典雅한 儒敎的 文化라든지 各時代의 特色을 돌린 文化證據를 낫낫치 들추어낼 것도 없이 朝鮮이 自來로 훌륭한 東方文化國임은 누구나 공인하는 바이다.³⁷⁾

문일평이 말한 조선은 오늘날의 한국이며 그는 조선왕조를 한양조로 불렀다. 이조(李朝)라든가 이씨조선으로 부른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그의 용어는 일본학자들과도 달랐다.

35) 물론 당연히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조선학운동을 '조선형적 파시즘'으로, 안재홍을 '사회파시스트'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는 당시 『조선중앙일보』가 주도했다(이지원, 2007, 위 책, 353쪽). 당시 마시스트들의 민족문제인식과 백남운의 것의 차이에 대해서는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 124~125쪽 참조.

36) 鶴園 裕, 1997, 『近代朝鮮における國學の形成 : 『朝鮮學』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5, 朝鮮史研究會, 65~68쪽. 추루조노 유타카(鶴園 裕)는 진단학회에 좌우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증시한다.

37) 1933.4.26, 『史眼으로 본 朝鮮(一)』, 『조선일보』 : 『全集』 2권, 1쪽

한편 그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문화는 오늘날의 만주문화에, 백제는 일본문화의 연원을 지었고 오늘날의 조선문화의 연원은 신라문화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신라는 통일전후에 문화적 번영을 누렸다.

三國의 文化가 最後勝利者인 新羅에 集中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統一前後에 있어서 留學生과 留學僧들이 唐으로부터 文物을 빨아드려 서울의 繁榮을 피하였으므로 新羅首都는 그대로 當時東洋文化의 最高表現은 全的佛敎에 있었고 그 보담도 藝術에 있었으니 그의 絢爛한 꽃이 피기는 聖德景德兩代인 바 오늘날 殘存한 遺物중에 佛國寺의 建築과 石窟庵의 彫刻이 모다 당시 代表的 傑作이다.³⁸⁾

즉 통일신라 전후의 문화를 당시 수준 높은 동양문화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고려, 조선을 평가할 때도 상당히 나타나 는 바였기에 그는 “朝鮮을 中心하고 볼 때에 朝鮮文化가 한팔로 滿洲를 끼안고 또 한 팔로 日本을 끼안아 東方一帶에 儼然히 君臨하였던 것”으로 보았다.³⁹⁾ 즉 정치적이 아닌 문화를 통해서 만주, 일본, 한반도의 문화를 인식하면 오히려 그 중심은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호암 당대에는 일본학자들에 의해 일본이 중심에, 한반도와 만주는 거기에 부속되는 것으로 전도되었다. 그는 당대 문화를 “과학적신문화”를 핵심적 가치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⁴⁰⁾

문일평은 자신이 살던 당대의 역전현상의 원인을 한국의 “역사적 진행의 지완(遲緩)”에 돌렸는데 그 원인으로 신라시대 이후의 “귀족제”의 지속적인 존재와 더불어 갑오경장 이전에도 존재했던 “노예제”를 들고 있다.⁴¹⁾ 물론 이는 당시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인 한국사의

38) 1939, 『湖巖史話集』, 人文社, 212쪽 ; 『全集』 4권, 212쪽

39) 1933.4.26, 『歷史로 본 朝鮮(一): 高文化國의 新試鍊』, 『조선일보』 ; 『全集』 2권, 2쪽

40) 위 글; 『全集』 2권, 2쪽

41) 1933.4.29, 『歷史로 본 朝鮮(二): 二天年貴族制』, 『조선일보』 ; 『全集』 2권, 3~4쪽

“봉건제부재론”과 비슷한 정체성론으로 볼 수 있지만 그는 이러한 구조조정론적 입장에서 역사를 보았던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는 다양한 인물들을 언론에 소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인식하도록 했다.⁴²⁾ 그는 조선의 지리가 동아시아의 패권경쟁의 장소이었기 때문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피폐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다. 그 원인으로 조선에도 혁명이 있었지만 “계급의 교대”가 없었음을 지적했다.⁴³⁾ 그는 사회변혁에 노력했던 한국 사상의 “반역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한국사의 중요한 힘으로 인식했다.⁴⁴⁾

그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수졸(守拙)”하지만 문화로는 “우월”하다고 보았기에 유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신라와 고려의 문화가 조선 왕조로 이어져 “찬연한 문명”이자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⁴⁵⁾ 호암이 소개한 한국사에서 3명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원효, 퇴계, 그리고 세종대왕이었는데 이는 불교, 유교, 그리고 민중을 위한 인물이다.⁴⁶⁾ 그는 앞의 두 인물이 귀족문명시대를 대표했다면 세종대왕이야말로 앞으로 올 “민중문명시대”의 “사상계의 선도자”라고 보았다. 특히 세종의 한글창제를 민본주의의 극치로 보면서 그를 “조선 사상”의 구현인으로 해석했다.⁴⁷⁾ 그는 “문화”를 사실상 “사상”과 동의어로 사용했다.⁴⁸⁾ 그는 세종의 업적과 조선학의 나아갈 바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42) 김광남, 1983, 앞 논문, 256~264쪽

43) 1933.4.30, 「歷史로 본 朝鮮(三): 進取보다 守拙」, 『조선일보』: 『全集』 2권, 5~6쪽

44) 김광남, 1983, 앞 논문, 264~268쪽

45) 1933.5.7, 「史眼로 본 朝鮮(六): 李朝文明의 結晶」, 『조선일보』: 『全集』 2권, 9~10쪽

46) 1933.5.10, 「史眼으로 본 朝鮮(七): 思想界의 三偉人」, 『조선일보』: 『全集』 2권, 11~13쪽

47) 1933.5.13, 「史眼으로 본 朝鮮(八): 儒佛學과 朝鮮學」, 『조선일보』: 『全集』 2권, 14쪽 이는 “朝鮮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김광남, 1983, 앞 논문, 254쪽).

48) 「史眼으로 본 朝鮮(八)」: 『全集』 2권, 14쪽

오직 이 朝鮮말이 生命을 담은 朝鮮글의 發明으로 해서 진정한 朝鮮文學의 樹立을 可能케 하니만큼 朝鮮글은 朝鮮學의 獨特性을 高調한 것이라 하겠다. … 한편으로 新文化를 받아들임과 함께 한편으로 朝鮮學을 잘 만들어 世界文化에 특수한 寄與가 있어야만 할 것이니 이는 文化族으로서의 朝鮮人에게 賦課된 一大使命인가 한다.⁴⁹⁾

전통문화의 성취에 반해 그는 당시 조선이 “가족주의”에 빠져있음을 비판하고 조선이 나아갈 길은 민중본위의 “민족단위”를 통한 “민족적 역사”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⁵⁰⁾

3. 문일평의 한국 대외관계사의 특징

1) 한국사에서의 대외관계사

문일평의 문화사에 대한 주관심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은 바로 대외관계사였다. 대외관계사는 한국사, 한국문화를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그가 평가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의 대외관계를 주로 삼국시대부터 다루고 있다. 우선 그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중시하는데 이에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들고 있다. 첫째는 6세기 초 신라의 한강유역진출이다. 특히 “大陸直通의 海路가 열린 때문이니 이것이 後日에 가서 對唐交涉의 成功한 一因이” 된 것이었다. 이는 6개의 부락에 불과했던 신라가 한 국가로 성장한 후 진흥왕대에 통일의 초석을 놓았다. 당시 통일의 토대를 쌓은 진흥왕은 군사나 정치만이 아니라 문화로도 황룡사, 불상, 술거(率居)의 벽화, 우륵(于勒)의 음악 등 훌륭한 점이 많았다고 보았다.⁵¹⁾

49) 1933.5.16, 「史眼으로 본 朝鮮(九): 朝鮮學의 意義」 『조선일보』: 『全集』 2권, 16쪽

50) 1929.11.13, 「朝鮮文化에 對한 一考察」 『조선일보』: 『全集』 2권, 20쪽

51) 「新羅小史」 『湖巖史話集』, 203~206쪽; 『全集』 2권, 203~206쪽

두 번째는 김유신과 김춘추라는 일류의 국제통이 당나라를 끌어들이나당연합을 이룬 점이었다.⁵²⁾

삼국통일 후 신라는 고구려의 유민을 지원해서 먼저 당나라를 축출한 후 다시 고구려의 잔여세력을 통치하게 되었다. 문일평은 이러한 대외관계를 통한 신라의 묘책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百濟全部와 高句麗一部를 가진 新羅統一이 비록 不完全하나마 半島에서 생긴 最初의 統一國家이니 우리 東方이 新羅라는 鎔爐속에 한덩어리로 鑄成된 것이 이때부터”라고 그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⁵³⁾ 그리고 발해의 멸망과 함께 발해문화가 고려로 흡수되었고 신라의 항복을 통해 고려는 “高麗의 國家的 雄圖가 南北 全般的 統一에 있었던 것”이었다. 이는 당시 고구려의 후예인 고려가 초기부터 북진을 추진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⁵⁴⁾ 그러나 거란의 강성함으로 고려의 북진은 압록강을 경계로 부딪힌 것은 “千秋의 遺憾”이었고 동북쪽의 여진의 성장도 북진을 막은 배경이었다. 아울러 묘청(妙淸)일파의 평양천도운동과 여진이 세운 금나라 정벌이 실패한 것은 “高麗 一代 精神上的의 大打擊”이었다.⁵⁵⁾ 이 대목은 단재의 사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호암은 고려가 북방영토의 수복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왕조말에는 요동정벌을 시도하다가 결국 고려가 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⁵⁶⁾ 그는 고려말에 요동정벌을 통해 요동지역인들이 고려왕조에 귀속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高麗가 이 千載一遇의 絶好한

52) 『新羅小史』 『湖巖史話集』, 207~208쪽; 『全集』 2권, 207~208쪽. 문일평은 신라통일의 원인으로 김춘추의 외교만이 아니라 화랑도를 중심으로 하는 “新羅國民의 忠烈義勇에 힘입은바 크다 할 것”이라고 했다(위 책, 211쪽).

53) 위 책, 209쪽. 그러나 그는 발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이를 ‘남북국시대’라고 칭하기도 했다(1930.1.1, 『史上의 庚午年』 『조선일보』; 『全集』 1권, 294~295쪽).

54) 『高麗의 國家的 雄圖』 『湖巖史話集』, 218~220쪽; 『全集』 2권, 218~220쪽. 문일평은 고려의 거란배척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발해를 한국사의 영역으로 보면서 고려의 민족주의를 전제하는 것이다.

55) 『高麗의 國家的 雄圖』 『湖巖史話集』, 222~224쪽; 『全集』 2권, 222~224쪽

56) 『高麗의 國家的 雄圖』 『湖巖史話集』, 227쪽; 『全集』 2권, 227쪽

機會를 붙잡지 못한 것만은 一大 失策이다”고 아쉬워했다.⁵⁷⁾ 그는 17세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동아시아의 왕조변동기에 청의 누르하치가 후금(後金)을 세우고 조선을 압박해왔을 때 광해군의 외교전술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반면에 인조의 대명의리론(對明義理論)을 “無謀와 失策”으로 평가했다.⁵⁸⁾

그는 만주가 당대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 각축하는 장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조선인의 “生長하는 搖籃이오 活躍하는 舞臺”로 보았는데 이 지역을 장악하는 자는 반드시 중국본토장악을 염두에 두었으므로 동북아의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⁵⁹⁾ 그리고 1930년대 초 만주는 조선인들 중 가난한 농민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지역이므로 “滿洲의 休戚이 바로 朝鮮의 利害에 關係되는 바 크다”고 보았다.⁶⁰⁾ 당시 만주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조선인들의 안정을 회구했던 것을 보여 준다. 그는 민족과 민족의식의 역사적 형성의 문제에서 자료가 불확실한 고대사에서 구하기보다는 삼국시기부터 최근세까지 한국사 전 시기에 집중했던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최근세사(구한말)에 특히 관심을 가지면서 왜 한국이 세계사의 변환기에 적응하는데 실패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호암과 막역한 사이였던 이병도의 아래의 추모사에 잘 요약되어 있다. 호암은 두계와 자주 술을 마시고 진단학회를 발기할 때 함께 했던 지기(知己)였다.⁶¹⁾

湖岩의 專門은 勿論 朝鮮史이나 朝鮮史에도 특히 어느 部分이 더 專攻이라고 말하기 어려울만큼 多方面으로 손을 대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장 興味를 갖고 많이 努力하기는 最近世史 특히 外交史에 있었다.⁶²⁾

57) 1929.6.1, 「朝鮮人と 國際眼(九)」, 『조선일보』; 『全集』 1권, 271쪽

58) 「朝滿間의 三戰役」, 『湖巖史話集』, 262쪽; 『全集』 2권, 262쪽

59) 1932.1.2, 「滿洲와 朝鮮民族 其間의 歷史的關係(一)」, 『동아일보』; 『全集』 1권, 366~367쪽

60) 1932.1.3, 「滿洲와 朝鮮民族 其間의 歷史的關係(二)」, 『동아일보』; 『全集』 1권, 369~370쪽

61) 호암은 두계와 밤늦게 술을 마시거나 두계의 집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문일평 저, 이한수 옮김, 2008, 앞 책, 29쪽 1월 25일 자 참조).

즉 호암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최근세사였다. 그는 최근세사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적응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으로 바로 주자학, 즉 송학(宋學)을 들고 있는데 “漢陽朝의 어느 時期에 와서는 宋學의 中毒이 消極政策과 아울러 人心을 癱瘓시키고 士氣를 消磨시킴이 이같이도 甚하게 되었으므로 西洋文明이 드러온 뒤에도 그것을 남처럼 利用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世界文運에 落伍된 人爲的原因”이라고 해석했다.⁶³⁾

이러한 조선후기의 사상계에 망국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시 새로운 것은 아니었고 실학을 다룬 학자들에게도 일부 공유되는 지점이었다. 하지만 호암의 인식상 특징은 고려중기 이후 만주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 이후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호암은 앞서 언급한대로 적어도 고려말, 혹은 조선 초기 태종, 세종, 세조까지 북방에 대한 관심이 살아있었고 그것이 한국사의 활력으로 보았다.⁶⁴⁾

앞서 언급한 그의 대외관계사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국제적 해안”을 강조했다. 그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의 중국과 북방과의 전략적 외교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⁶⁵⁾ 두 번째, 그는 대외관계사에서 문화를 매우 중시했다. 특히 그는 문화수입통로로서 유학생과 구법승(求法僧)의 중국, 인도행 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아래는 조선시대와 관련된 그의 평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만 三國以來 高麗末까지만치드라도 千有餘年동안 끊임없이 文化攝取의 先鋒隊로 치든 留學生과 求法僧이 漢陽朝에 와서는 아주 자취가 끊어지고(最近除外) 말았으니 朝鮮人이 文化的으로 固陋하게 되는 동시에 政治的으로 暗昧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말하면 朝鮮人의 그 슬기있는

62) 이병도, 1939, 『史家로서의 故 湖岩』, 『朝光』: 『全集』 5권, 437쪽

63) 1929.11.3, 『西勢東漸의 先驅(五)』, 『조선일보』: 『全集』 1권, 251쪽; 김광남, 1984, 앞 논문, 743쪽도 문일평이 “성리학”이 문제라고 보았다고 지적했다.

64) 『朝滿間의 三戰役』, 『湖巖史話集』, 233쪽; 『全集』 2권, 233쪽

65) 1929.5.22, 『朝鮮人과 國際眼(一)』, 『조선일보』: 『全集』 1권, 252~253쪽

國際眼이 무디게된 것이 理由없는 것이 아니다. 漢陽朝의 文化가 朝鮮我의 特徵을 發揮하면서도 홀로 民族我의 尊嚴에 이르러는 말할 수 없게 되었으니 ...66)

즉 유학생에 대한 문화수입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호암이 유학생들과 외유를 하면서 몸소 느꼈던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한미관계오십년사』와 한국근대의 대외관계

한편 호암의 대외관계사에 대한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전집』 1권에 실린 『한미관계오십년사』이다. 이 글은 1860년대 제너럴셔먼호 사건부터 1910년대까지의 한미관계를 다룬 글로 1934년 7월부터 근 100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실린 것을 묶은 것이다.⁶⁷⁾ 해방 직후 이 글은 따로 전집에서 떼어 단행본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 후 이광린이 일기 쉬운 문장으로 고쳐서 다시 단행본으로 발간했다.⁶⁸⁾ 이 책은 호암의 정치학수학의 배경을 생각할 때 어쩌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병도는 이 책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 『對美關係五十年史』는 新聞紙에 發表한 것인만치 通俗的으로 되어 學術的 論文으로 化하기에는 많은 修正을 要할자이나 그러나 湖岩의 遺稿로 이만치 體系를 세워 쓴 大分量의 것은 別로 없는 모양인즉 史家로서의 湖岩을 알자면 이글에서 더 많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⁶⁹⁾

이병도의 지적은 이 책의 의의를 가장 잘 보여준다. 즉 문일평의 업

66) 1929.5.23, 「朝鮮人と 國際眼(二)」, 『조선일보』: 『全集』 1권, 254쪽; 김광남, 1984, 앞 논문, 743쪽

67) 문일평의 이 저작이 1882년부터 1930년대까지 다루었다고 한 김광남의 지적은 재검토를 요한다(김광남, 1984, 위 논문, 728쪽).

68) 문일평 저, 이광린 校註, 1975, 『韓美五十年史』, 탐구당

69) 이병도, 1939, 앞 글, 437쪽

적에 대해서 학문적 엄밀성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의 저술활동은 '통속적', 즉 보통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주안점이 있었다.

호암은 이 책을 쓰기 위해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경성제대, 연희전문학교 등에서 책을 빌려보았다. 특히 그는 다양한 영문저서나 논문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번역해서 이용했다. 주로 번역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지인들이나 그 자체들을 이용하곤 했다. 사용한 책들의 예를 들면 해럴드 노블(Harold J. Noble)의 『1883년 조선사절 도미 전말(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⁷⁰⁾라든가 청나라가 파견한 뮐렌도르프(Paul G. V. Möllendorf)와 오웬 데니(Owen N. Denny)의 기록들, 이묘목의 시라큐스(Syracus)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등을 섭렵했다.⁷¹⁾ 한국 측 자료로는 『承政院日記』, 『日省錄』, 『同文彙考』, 『通文館志』 등의 경성제대 소속의 규장각의 정부 자료들과 김홍집, 어윤중, 김육균 등의 문집 혹은 일기 등을 검토했다. 이외에도 일본 측의 문헌들(시노부 준베이[信夫淳平]의 『近世外交史』나 『支那外交通史』)과 중국의 기록(『中日六十年間外交史』 등)도 이용했다.⁷²⁾ 호암은 가능한 상당히 폭넓게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한미관계사에 대한 글을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홍이섭이 지적한 대로 “外患에서는 국제적인 관계사로서 閉鎖的인 한국인의 眼界를 넓게 국제적인데로 열어 놓아 落後된 한국의 현실을 바로 認識시키고자 한데 湖岩선생의 本意圖가 있었다”고 한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판단된다.⁷³⁾

70) 이는 영국왕립협회 조선지부가 발행한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8 (1929)에 발표되었다.

71) 연희전문 의 백낙준은 같은 학교의 동료인 이묘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호암이 자의적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문일평 저, 이한수 옮김, 2008, 앞 책, 149~150쪽 11월 20일 자). 물론 이는 영문자료 사용 자체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일본 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더 검토의 여지가 있다.

72) 자세한 목록은 문일평 저, 이한수 옮김, 2008, 위 책, 344~345쪽 참조.

73) 홍이섭, 1962, 앞 논문, 432쪽

이 책은 식민지시기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다룬 당시의 유일한 국내업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히 논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만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대체로 호암이 조선왕실과 지도층을 비판적으로 보았으므로 조선왕실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이는 1934년 무렵에 실록이 공개되었지만 고종, 순종 실록 부분은 누락부분이 많아서 실제 조선왕실의 대응을 연구하기에는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 둘째,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민간인들의 움직임을 분리해서 보면서 전자의 제국주의적 일본지원책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미국정부의 정책이 조선에 대해서 “불간섭정책”으로서 미국공사 알렌(Horace N. Allen)이나 샌즈(William Sands) 등의 조선정부지원책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정확히 지적했다.⁷⁴⁾ 아울러 당시 미대통령이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의 일본 지원이 한국의 운명을 갈랐다고 명확히 언급했다.⁷⁵⁾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문일평의 문화사적 입장에서 한미관계에서도 선교사나 유학생, 노동자 등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문일평의 한미관계사에 대한 공헌은,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가진 대미인식의 한 부분, 즉 미국 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은 비판하되 미국을 통한 19세기 말부터의 한국사회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므로 비록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외교관계가 단절되면서 정치적 관계는 끝나지만 하와이 이민자라든가 교민단체,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 등의 존재는 한미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했다. 또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은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아래의 인용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한인의 信敎하는 이면에는 선교사의 위세를 빌리려는 動機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 중에 적이 識者라야 정치 관계나 泰西 학술로 해서 입 교하게 되고 진정한 신앙으로 귀의하는 이는 이른바 鳳毛麟角과 같이 희

74) 문일평 저, 이광린 校註, 1975, 앞 책, 254쪽

75) 문일평 저, 이광린 校註, 1975, 위 책, 258~260쪽

귀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알렌 공사 시대(필자: 1897-1905)에 있어 반도의 時局의 급전함을 따라 기독교도도 격증함을 보게 되었다. 어쨌든지 美國人선교사들은 여명기의 조선인을 지도 및 계발하여 준 恩人이었다.⁷⁶⁾

호암은 한미관계의 정치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직 문화상 연결은 선교사들의 진력에 의하여 일대 성공을 보게 되었다”고 했는데⁷⁷⁾ 그는 선교사들에 의해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이 외국, 특히 문명의 척도인 미국과 다양한 관계를 맺은 것을 고려조까지의 전통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호암이 이렇게 한국문화를 독자적인 단위로 두고 한국사를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일제 통치의 후반기인 파시즘시대에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의 민중중심의 한국사는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 당시 중국에서도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에 구오지에강(顧頡剛) 등에 의해 주도된 ‘국학운동’을 통해서 『四庫全書』 등이 다량으로 출판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후일 국민당 정부의 보수적 해석으로 회귀되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⁷⁸⁾ 이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거리가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가까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인 ‘문화민족주의자’들이 ‘민족문화’의 담지자를 한국인들의 독립국가로 상정했다면 총독부는 적극적인 탄압을 가했을 것이다.⁷⁹⁾

문일평처럼 ‘민족문화’의 주체를 반드시 국가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민중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으로 상정하는 ‘모호한’ 전략을 취한다면 총독부 파시즘 체제아래에서 탄압의 명분은 줄어들고 총독부 파시즘 체제하에 온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일제 당국도 단일민족(nationalty)

76) 문일평 저, 이광린 校註, 1975, 위 책, 253쪽

77) 문일평 저, 이광린 校註, 1975, 위 책, 267쪽

78) 물론 고힐강도 후일 ‘국학운동’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었다. 로렌스 슈나이더 저, 나현수 역, 1985, 『國學運動과 中國의 新史學』, 『중국의 역사인식』 하, 창작과 비평사 참조.

79) 그러므로 전시 파시즘 체제하에서 안재홍이나 홍명희 등의 활동이 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지원, 2007, 앞 책, 356~358쪽

하에 다종족성(multi-ethnicity)사회를 상정하고 있었으므로 식민지 지식인들이 이것을 자신들의 주장을 온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호암은 최남선과는 달리 단군신화를 통한 한국인들의 독자성을 논한 것이 아니라 삼국, 고려, 조선, 개항기로 이어지는 시기의 '역사적 민족'에 주목했기 때문에 일제 측의 공식 담론과는 다른 논의의 지형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호암은 1939년에 지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전시체제에 대한 협력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맺음말-해방 후의 유산

호암은 '조선심'과 '조선사상'등을 사용해서 한국역사에 나타난 문화를 이해하고자 했다. 물론 그의 글들이 당시의 현실과 역사를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었는지는 좀 더 치밀하게 다른 역사학자들을 다룬 각종 자료와 비교·대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 식민지가 된 조선이 문화적으로는 발전해왔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물론 그것이 사회주의자들이 보는 단계론적 역사발전론과는 달랐지만 세계조류와 공명하는 한국사상의 발전을 역사의 진보로 해석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전형적으로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소지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역사발전의 동력을 대외관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규명하려고 했다. 즉 한국이 만주, 미국 등과 대외적으로 교류하고 있을 때 사회의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민족주의적인 역사학은 사실상 헤겔의 역사관, 특히 “세계역사를 자유를 향한 이성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인 역사시대에서 확인하는 것이었다. 한국사학계에서 사학사와 고대사에 대한 연구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기백(1924~2004)의 아래의 언급은 지금까지 언급해온, 문일평과 같은 인물들이 가졌던 민족주의 사학의 영향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당시(식민지기: 필자) 내가 감동깊게 읽은 한국사에 관한 글로는 신채호의 「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朝鮮史研究草』, 1929)과 함석헌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聖書朝鮮』, 1934~1935)가 있다. ... 나는 1941년에 일본의 와세다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에 읽은 랑케L. Ranke의 『強國論』이 나의 민족주의적 사고를 더욱 굳게 했다. 랑케는 세계사에서의 민족의 역할을 강조하고, 독자적인 문화적 성격을 지닌 민족 단위의 국가를 강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헤겔G.W.F. Hegel의 『歷史哲學緒論』과 마이네케F. Meinecke의 『역사주의의 입장』(원래의 제목은 『역사적 감각과 역사의 의미』)도 펍 흥미있게 읽었다.⁸⁰⁾

이기백의 고백은 식민지시기 일본 대학에 유학한 한국의 제도권 역사학자 1세대들을 단순히 '친일적'이었나 '민족적'이었나의 구도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편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일본어로 번역된 독일서적들이었지만 이러한 식민지기에 맹위를 떨친 민족주의의 영향력을 규정한 것은 유럽-아시아-식민지를 관통하는 당시의 지적인 '세계화'속의 각 지역적 변용이었다.

문일평의 사례는 그러한 세계적 사상의 응축을 보여준다. 그리고 '민족'을 단위로 과거 역사를 사고하는 그 자체가 바로 2차 대전 전, 아니 냉전시대까지 세계적 공통양식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민족과 국가의 범위가 거의 같았다는 점이 유럽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는 세계사적 조류에 참여하는 '진보적' 방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⁸¹⁾ 하지만 호암과 같이 역사적 변화와 문화 속에서 '민족'의 활동을 규명하려고 할 때는 민족의 외연과 내연의 경계가 느슨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역사학은 탈냉전후 지역단위의 사고, 세계단위의 사고 등 국가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사고들의 출현에 답해야할 과제에 직

80) 이기백, 2004, 「한국사의 진실을 찾아서」, 『한국사시민강좌』 35, 일조각, 226~227쪽

81) “‘민족문화’는 근대 민족주의 사상·패러다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근대문화의 보편적인 범주이자 현상으로서 성립되었다”는 이지원의 지적은 중요하다(이지원, 2007, 앞 책, 6쪽).

면해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민족주의(신민족주의) 역사학이 한국 내에서 학문적·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호암의 사학이 보여지는, 역사과정 내에서 다른 문화권과의 접촉을 통한 민족주의의 실상을 규명하는 작업은 민족주의사학의 풍부한 제 측면의 한 단면을 제공하고 있다.

논문 투고일 : 2010. 11. 11 심사 완료일 : 2010. 12. 14 게재 확정일 : 2010. 12. 14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1939, 『湖岩文一平全集』 1~3권, 조선일보사출판부 (1994년 민속원 재간)

1940, 『湖岩文一平全集』 4권, 조선일보사출판부 (1994년 민속원 재간)

1995, 『湖岩文一平全集』 5권(新聞補遺篇), 민속원

이기백 편, 1975, 『湖岩史論選』, 탐구당

권태억, 2001, 「동화정책론」 『역사학보』 172

김광남, 1983, 「문일평의 인물론에 대하여」 『사학연구』 36

김광남, 1984, 「호암 문일평의 외교인식」 『사학연구』 38

김용섭, 1976,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의 발달-1930·40년대의 민족사학」(이
우성·강만길 편, 『한국의 역사인식』 下, 창작과 비평사)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 저, 이규원 옮김, 2008, 「천황과 도쿄대-현대 일
본을 형성한 두 개의 중심축」, 청어람미디어

로렌스 슈나이더 저, 나현수 역, 1985, 「國學運動과 中國의 新史學」 『중국
의 역사인식』 하, 창작과 비평사

문일평 저, 이한수 옮김, 2008, 『문일평 1934년-식민지 시대 한 지식인의
일기』, 살림

문철영, 1987, 「호암 문일평의 역사인식」 『한국학보』 46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
경제사 상』, 역사비평사

송찬섭, 1994, 「일제의 식민사학」(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한국의 역
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 비평사)

스테판 다나카 저, 박영재·함동주 옮김,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
과 지성사

윤해동, 1994, 「문일평」(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
사학』 하, 창작과 비평사)

이기백, 1973, 「해설-한국 근대사학의 발전」(이기백 편저, 『근대한국사는

선), 탐구당)

- 이기백, 2004, 「한국사의 진실을 찾아서」 『한국사시민강좌』 35, 일조각
- 이만열, 1976, 「일본관학자들의 식민사관」(이우성·강만길 편, 『한국의 역사인식』 下, 창작과 비평사)
- 이지원, 2007,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 장석홍, 1994, 「안학」(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 비평사)
- 프래신깃트 두아라 저, 한석정 옮김, 2006, 『주권과 순수성-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 최기영, 1994, 「문일평」 『한국사시민강좌』 15
- 최기영, 1995, 「『湖岩 文一平全集』해제」 『호암 문일평 전집 5-新聞補遺 篇』, 민속원
- 한영우, 1994,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 홍이섭, 1962, 「湖岩 文一平-韓國史認識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 『사상계』 9월호
- 鶴園 裕, 1997, 「近代朝鮮における國學の形成 : 「朝鮮學」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5
- Schmid, Andre, 2000. "Decentering the "Middle Kingdom": The Problem of China in Korean Nationalist Thought, 1895-1910," in *Nation Works: Asian Elites and National Identities*, eds. Timothy Brook and Andre Schmid, Ann Arbor, MI, the Univeristy f Michigan Press
- Brownlee, John S. 1997. *Japanese Historians and the National Myths, 1600-1945: The Age of the Gods and Emperor Jimmu*, Vancouver, 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Abstract

Mun, Il-Pyŏng's "Cultural Nationalism" History and Its Thoughts in the 1930s : With Focus on Korean Foreign Relations

An, Jong-chol*

This article deals with Hoam (penname) Mun Il-Pyŏng's life and works. Mun was one of the distinguished modern nationalists in the realm of "Cultural Nationalism." New Points that this article focus 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Mun was born in Ŭiju, northwestern border town in Korea where Christianity was strong. He tried to study abroad just after th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However, he failed and instead went to Japan for study. This shows that he was exposed to western civilization as well as Korean nationalism.

Secondly, while staying in Japan and China in his twenties, he met several prominent Korean nationalists such as Hong Myŏng-hŭi, Park Ŭn-sik, Chŏng In-bo, and Sin Chae-ho etc. This contact seems to make him lean toward Korean Studies rather than western culture. Thirdly, Mun did not focus on the origins of the Korean nation or ancient Korean-Japanese relations as Japanese colonial scholars and Korean counterparts did. Rather, he argued that while there were political problems since mid-Koryŏ up to the Chosŏn

* HK Research Professor,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dynasty, Korean society did show progress in term of culture. Fourth, he paid attention to Korean foreign relations such as Korean study abroad students and cultural exchanges etc. Fifthly, Mun focused on Korean-American relations as a part of modern foreign relations since the enlightenment period. Specifically, he dealt with American missionary, Korean emigrants, and Korean study abroad students etc. As important factors for Korean progress and cultural transformation, Mun considered these encounters to be very critical. It is meaningful that Mun's cultural nationalistic works put Korean history as a developing one with incessant encounter with outer world.

key words : Cultural Nationalism, Mun Il-Pyŏng, Christianity, Korean Foreign Relation, *Hanmi kwankye osimnyŏn sa* [History of fifty years on Korean-American relations], *Chosŏn ilbo* [Chosun Daily]